

친환경 마크 모르면서 물건 사지 마요 사물 속에 숨어 있는 친환경 마크

앞장에서 살펴 본 친환경 소비법이 너무 어렵다면 쉬운 것부터 실천해 보자. 물건 하나를 사도 과포장된 것은 피하고, 기왕이면 친환경 인증마크가 달린 것을 고르면 어떨까. 또 버려진 물건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_편집실



물건 하나를 사도 친환경 마크를 살피자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과 관련해 대표적인 인증 제도로 '친환경 마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이나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등 자원 절약과 관련 있는 저공해 상품이 받을 수 있는 인증 제도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도입했다.



기존에 세 가지(친환경 마크, 탄소발자국, 환경성적) 디자인으로 구분했던 친환경인증마크는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웠다. 이에 2017년 1월 28일부터 현재의 친환경 마크 모양 하나로 통일해 사용 중이다.

친환경 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해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친환경 마크는 사무용 기기나 가구부터 사무용품, 주택 또는 건설용 자재와 재료, 설비, 개인용품,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 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과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이나 의약품과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등은 제외대상이다. 일상에서 친환경 마크 인증 제품을 골라야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최소한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에게 잠깐 빌려 쓰는 지구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최소의 행동이 바로 친환경 마크 인증 제품 사용이 아닐까.



먹고 마시는 음식도 친환경으로

흔히 '친환경'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친환경 먹을거리다. 마트에 가면 무농약, 유기농 이런 단어를 쓴 제품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부터 살펴보자. 이 제도는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해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안에 속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기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같은 화학자재를 전혀 쓰지 않거나 최소로 써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 농축산물은 토양이나 물은 물론, 생육이나 수확 등 생산과 출하단계에서도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하고, 유통 중에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어

기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히 검사한다.

친환경 농축산물은 크게 2개 종류와 2개 기준으로 구분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눈다. 만약 구매한 제품이 친환경 제품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서 인증정보를 검색해 보자.

TIP

해의 직구할 때 살피요, 해외 친환경 마크



일본

일본 환경협회에서 인증하는 일본의 대표적 친환경제품 인증 마크. 생산, 제조,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친환경성을 갖춘 제품에 부여함.



중국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환경연합인증센터에서 관리함.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환경인증 마크.



유럽연합

유럽위원회(EC)가 인증하며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다. 환경 성능 기준을 통해 상위 20%에 부합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해줌.



미국

그린 실(미국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 환경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한다. 가정용 제품부터 건축제품, 인쇄, 음식물 포장지, 세척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함.

버린 물건 다시 쓰는 업사이클링

최근에는 버린 물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도 인기다. 재활용(recycling)은 목적을 다한 물건을 다시 쓰는 수준이지만, 업사이클링은 이름처럼 재활용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습은 온데 간데 사라지지만 새로운 가치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업사이클링의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흔하게는 선거철이 지나면 쏟아져 나오는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이 있다. 또 버려진 와인병을 재단해 양초꽃이로 만든다거나 낡은 소파를 뜯어 자투리 가죽으로 카드지갑을 만들기도 한다.